

## 1 개요

사람들이 닭을 길러서 잡아먹는 데에 개와 닭이 원한을 품고, 협력하여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이다.

닭은 3년 이상 기르면 안 되고, 개는 7년 이상 기르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이야기이다.

## 2 내용

사람들이 토종닭을 3년 이상 기르고, 개를 7년 이상 기르면 사람으로 변해서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. 한 부자가 닭 100마리를 길렀는데 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라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먹었다. 이 집에는 10년 정도 기른 개도 있고, 5~6년 기른 닭도 있었다.

하루는 이 닭(장닭)이 할아버지가 되어 나타났다. 그 집에 있던 개에게 “우리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 친한 사이가 아니냐.”고 하면서 주인이 닭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했다.

장닭은 주인이 타는 말을 타고 뱀 굴로 찾아가서 사왕(뱀 우두머리)에게 도움을 청한다. 뱀 무리들이 주인집 울타리를 빙 둘러있기로 약속하며, 삼해유(三亥油 : 일 년이 해년 해 월 해일에 뽀 기름)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한다. 부자 아들이 이 사실을 엿듣고 집 울타리에 삼해유를 뿌리니 모여 있던 뱀들이 모두 죽었다. 이후 집에서 닭은 3년, 개는 7년 이상 기르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,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전해온다.

## 3 특징

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축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보여준다. 또한, 사람들과 가축이 오래 지내게 되면 가축이 영물이 되어서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.

## 4 핵심어

개, 닭, 계불과 삼년, 구불과 칠년, 사굴(뱀굴), 사왕, 삼해유

## 5 원전 서지사항

개와 닭의 원한(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, 《백록어문》 창간호, 1986)

## 6 관련 자료